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4일 에코붓다와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개발,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4대강 사업...대화 단절로 환경파괴”

佛환경연대·에코 심포지엄, ‘녹색불교’ 지향

서재영 “모든 생명 섬기는 삶” 실천청구 주장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현시대에 맞는 문제의식으로 재구성한 ‘녹색불교’를 통해 오늘날의 환경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4대강 개발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불교환경연대와 에코붓다가 공동 주최한 불교와 생명 공동연구 심포지엄에서 ‘불교적 관점에서 본 4대강 사업’을 주제로 발표한 서재영 조계종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서재영 연구원은 환경위기의 근원을 “삶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 뒤, “발전에 대한 과거의 가치와 패러다임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녹색불교는 이와 같은 가치관과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인식의 전환이자 삶의 실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재영 연구원은 “4대강 사업은 독선의 아집, 대화의 단절, 존재와 질서의 파괴로 볼 수 있다”고 비판하며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환경파괴와 대량살생을 막는 것이 진정한 대승적 실천이며 보살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연구원은 “정치, 사회적인 문제인 4대강 사업의 출발은 ‘나’라는 개인에 있다”면서 “모든 생명을 섬기는 삶 △자연은 미래세대와 못 생명의 미래를 고려해 이용 △자연과 인간이 서로 살리는 공생의 삶 △소속지족의 소박한 삶 등을 생명살림을 위한 불자들의 실천청구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입장에는 공감하면서도 “불자들의 삶 속에

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역사, 문화, 인간과 환경 등의 요소가 녹아 있는 우리나라의 5대강을 복합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환경·생태, 사회·문화,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개발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주제 발표에 이어 △국민들과의 합의·동의과정 수립 △분류보다 지천 살리기 우선 △환경영향평가 등 충분하고 다양한 조사 △사업의 속도 조절 △시범지역 실시 후 전국적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권고’가 발표됐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을 비롯해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임태규 기자** che111@ibulgyo.com

2011년 고려대장경 간행 1000년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 만방에 알려 25일 각계 대표 1000여명 국민보고 대회

오는 2011년 고려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아 열리는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을 만방에 알리는 행사가 열린다. 경상남도과 합천군, 해인사,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김태영 경남발전연구원 박사가 대장경 천년축전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주최측 대표들은 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할 계획이다. 이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대장경의 가치 등에 관해 특강을 한다. 또 해인총림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등을 소개하는 영상물도 상영된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원로위원과 종회의원, 해인사 스님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관계와 학계, 경제계, 중



해인사 장경각에 봉안된 고려대장경.

교계 등 10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해 이날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장경 간행 1000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오는 2011년 9월23일부터 11월6일까지 대장경이 봉안된 해인사와 합천군 가야면 행사장, 창원 컨벤션센터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순학 경남서부지사장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추본 위상 상향...남북교류 ‘청신호’

사단법인 추진

3일 발기인대회, 이사진 선임·정관 확정

조계종 남북교류 추진 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스님)가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한다. 민추본은 조계종 종령기구로 존재해왔다.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통일부에 단체 등록을 하면 대외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 합법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어 민추본의 역할과 위상이 지금보다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추본은 올

6월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민추본은 법인 등록에 앞서 지난 3일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사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이사진 선임을 마치고 정관을 확정했다.

이사장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맡았으며 본부장인 명진스님(봉은사 주지)이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이사는 당연직인 사회부장 해경스님을 비롯 민추본 집행위원들이 참석했다. 선묵스님

(불교신문 사장, 도선사 주지), 지홍스님(불광사 회주), 정념스님(전 낙산사 주지), 계호스님(서울 진관사 주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고유환 동국대 교수 등이다. 심재화(법무법인 정평) 천낙봉(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감사로 선출됐다. 민추본 사무처장 진호스님은 “모든 준비가 끝나 곧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민추본은 법인 등록에 앞서 지난 3일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사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이사진 선임을 마치고 정관을 확정했다. 사진은 발기인대회 직후 기념촬영 모습.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가야산 주민들 “골프장 반대” 총무원 찾아 협조 호소



‘가야산 골프장 조성 반대 대책위’ 100여명은 지난 3일 총무원을 방문, 사회부장 해경스님과 면담을 갖고 지원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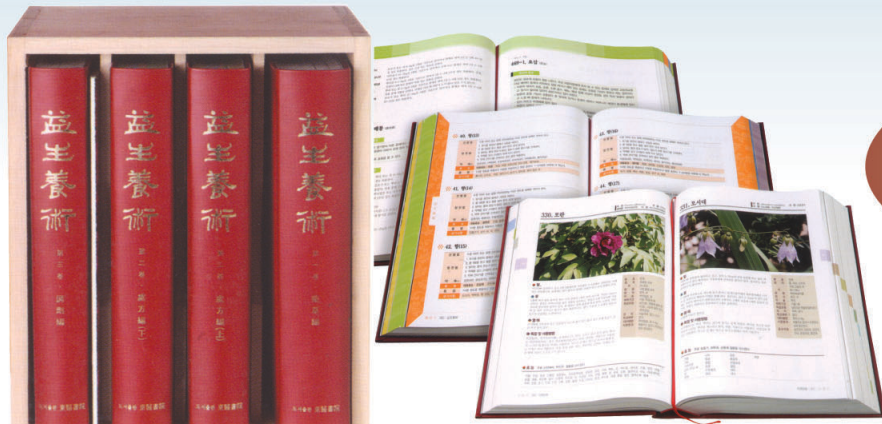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립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했다.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인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로 구성된 ‘가야산 골프장 조성 반대 대책위’(위원장 김창기) 위원 10여명은 지난 3일 총무원을 방문해 사회부장 해경스님과 면담을 갖고 불교계의 지원을 당부했다. 사회부는 조계종 환경위원회를 통해 골프장 건립으로 인한 생태 수질오염 문화 유산 피해 정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철현 대책위 총무는 면담 결과에 대해 “총무원이 많은 관심을 보여 감사하다”며 “골프장 건립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야산 골프장 건립 움직임은 1990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주민과 해인사 등이 나서 반대한데다 2003년 대법원이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사업 허가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려 일단락 됐었다. 최근 모 개발업체가 골프장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것이 알려져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박부영 기자**

마지막 소장 기회!

동의보감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大역사(役事)!!



“현대판 동의보감 [의생양술] 나왔다
...고종 선 노인의 50여년 정성과 집념이 토종약초 대전에 빛을 보게 됐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전통 민간요법을 집대성한 ‘의생양술’이 그것이다. 저자인 권혁세(71 한국민간요법연구회장)씨는 해방 전후 선천과 이장호 성공회 신부에게서 신기한 안초 처방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평생 전국을 찾다니며 4만여 가지의 민간요법을 수집하고 이를 체계화해 기록했다....(하략)” - 중앙일보 2007.08.28 -

“의생양술, 2만 가지 민간요법 공개
...그의 의생양술에는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 일간스포츠 2007.07.10 -

주요 신문 / 방송사 특집보도!

KBS 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2부 (2007. 10. 16)

MBC 뉴스데스크 (2007. 09. 21)

益生養術

우리 주변에 산재하는 수많은
신토불이 약초·약재들의 생태와 약리적 특성,
이를 활용한 20,000가지 전통 민간요법을
검증 정제하고 실용화해 총집대성 함으로써
고금의 가장 위대한 의술을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한
우리시대에 이루어낸 또 하나의 기념비적 위업(偉業)!!

‘향후 누가 있어 평생을 오롯이 바쳐도 이룰지 모를
이 지난(至難)한 작업을 해 내겠는가!’

“...이 책은 국내 최초의 제대로 된 방대한 본초학 교과서이자 한의사들이 토종 약초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을 담고 있는,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년 지혜와 연구노력의 집약판...” -엄종희(전 대한한의학회회장)-

“...놀라운 역작(力作)이다. 우리의 선조는 예로부터 평생 연구한 비법은 누설을 염려, 후계자 한사람에게만 전수하다 보니 대부분 문서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에 한 약초연구가의 평생의 집념과 각고 그리고 사명감이 마침내 대업을 이루었으니 능히 현대판 동의보감이라 할만하다...” -안경환(전 경희대 약학대학 교수, 식약청 생약 자문위원)-

“...명약이란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믿는 미몽과 편견이 안타깝다...” -발간사 중에서-

- 구성 -

- ◆ 1권 〈약초 편〉
1,000여 종 약용동식물의 생태 및 특징, 약효, 채취기간, 취급요령, 성미, 독성여부, 사용량, 사용범위, 사용방법, 적응증 등을 총괄 정리 수록했으며, 전래 민간요법의 효능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본초학 지식을 집약시킨 효용도 높은 도감으로 꾸며졌으며, 각권과 연계되어 활용되도록 편성.
- ◆ 2권(상·하) 〈처방 편〉
888종 질병의 원인 및 증상에 따른 20,000여 가지 처방, 치료 처방법을 상세히 설명, 스스로 진단해 가장 손쉽게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활용토록 했으며, 전문가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워 익힐 수 있도록 대중성 및 실용성의 극대화를 꾀함.
- ◆ 3권 〈조제 편〉
1권에 수록된 각종 약용동식물을 활용한 500여 종류의 처방·혼합 주침(약술)요법, 270여 종류 탕전요법, 100여 종류 약차요법, 약재 및 먹거리를 이용한 1,000여 종류 식이요법 등 저자만의 비법 및 비전(秘傳)조제술, 자기진단법 총 집대성.

아래 발송관리처로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고 대금은 수령 후 송금(신용카드 가능)하시면 됩니다.

◆ 학술편수관 T · 02-2618-0700, 070-8811-5775 F · 032)348-1240